



응우옌후에 저민의 풍경

## 활기찬대도시, 호치민

비구름과 안개로 가득했던 북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 호치민으로 내려왔다. 4일 만에 만난 맑은 하늘과 선명한 햇빛은 여행 끝 무렵의 아쉬운 기분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변화한 도시라더니, 공항부터 활기가 가득하다. 호치민은 과거 남베트남의 수도로 사이공 Saigo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이후 베트남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친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 '호치민'에 의해 도시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라더니 확실히 도시는 컸다. 고층 빌딩이 가득했고, 대도시 특유의 화려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모한 흥분과 설렘으로 차에 올랐다. 호텔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오토바이 부대는 반갑기까지 했다.



호치민에서 만난 오토바이 부대



## 호치민 거리 산책

하노이와 하롱베이에서 내내 흐린 하늘만 보았기에 화창한 날씨의 호치민은 매력적이었다. 호텔이 있는 타임스퀘어 건물 앞으로 나가면 응우옌후에 Nguyen Hue 거리다. 마치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이 있는 것처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오로지 사람만 걸을 수 있는 직선의 길이 놓여 있다. 응우옌후에 워킹 스트리트라고 불린다. 여행자는 시청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시민들은 그늘에 자리를 잡고 잠시 쉬고 있다. 밤에 잠깐 나와서 보았을 때는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낮은 비교적 한산하다. 길 끝에는 시청사와 호치민 동상이 서 있고 거리 주변에 레스토랑과 카페, 상점, 펍 등이 즐비해 있다. 요란하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피해 길을 건너갔다. 호치민에서 가장 험하고 핫한 카페와 펍은 응우옌후에 거리에 있다. 호텔 매니저는 1층보다는 2층이나 그 이상 높이로 올라가야 한다

고 추천해주었다. 그게 아니라면 건물 앞을 잘 보라고. 오토바이가 많이 주차되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핫플레이스라고 말이다. 확실히 거리를 걷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높은 건물에 분위기 좋은 펍과 카페가 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딘가에 들어가서 쉬는 것도 좋겠지만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어 사거리에 있는 평범한 카페에서 밀크티를 산 뒤 도시를 걸었다. 동코이(Dong Khoi) 거리로 들어가 골목과 골목을 지나니 유명하다는 오페라하우스와 성당, 우체국이 있었다. 대부분 변화가와 가까워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였다. 잠깐 길을 잃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이름 모르는 카페에 들어가 베트남 커피 원두를 사고,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구경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호치민 도시를 둘러보는 것은 충분했다.



낮의 동코이거리



## 야시장, 1,000원의 행복

다음날 이른 새벽에 체크아웃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아쉬워 구역구역 밖으로 나왔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호텔 직원은 지도에 친절히 길을 그려주었다. 소지품을 조심하라는 당부도 함께 건넸다. 밤의 호치민은 변화하고 화려했다. 도시는 조명으로 빛났고 누구도 잠들지 않을 것처럼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와 길가에 주저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자주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다. 야시장은 벤타시장 건너편에 열렸다. 50m정도 되는 거리에 직선으로 천막을 친 상인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과 가격 흥정을 하는 여행자들,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기념품이 장식된 판매대를 보니 제법 야시장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사볼까 했지만 남아 있는 베트남 돈은 겨우 12만 동. 겁받침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고, 그마저도 흥정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었다. 맥주라도 한잔 할 겸 야시장 중간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깔아둔 식당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가져다준 메뉴판에 맥주 한 캔 가격은 한국 돈으로 겨우 1,000원이었다. 망설임 없이 나와 일행은 각자 한 병씩 주문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주변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음식냄새가 풍겨왔다. 워낙 시끄러워서 대화를 나누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렇게 두 시간을 맥주 한 캔으로 보냈다. 1,000원의 행복이 이런 걸까. 소소한 베트남의 마지막 밤이 지나간다. 또다시 올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서.



- 1 응우옌후에 워킹 스트리트
- 2 기념품 숍에서 파는 물건
- 3 도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립 오토바이
- 4 조명으로 빛나는 밤의 시청사
- 5 야시장에서 마신 맥주
- 6 활기찬 야시장



### tip

#### 베트남 하우스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이곳은 어떨까. 호주에서 태어난 베트남 셰프 루케 응우옌(Luke Nguyen)이 오픈한 베트남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동코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건물 역시 1910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건축물로 역사가 깊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메뉴는 와규로 만든 쌀국수와 랍스타가 들어간 스프링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세오까지 대부분 익숙한 메뉴다. 루케 응우옌이 직접 베트남을 여행하며 맛본 음식을 고급스럽게 변신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음식 본연의 맛을 없앤 것은 아니니 경험해 보자.



▲ 탄성을 지어내는 1층 리셉션 ▼ 중세 유럽의 귀족 거택 같은 스위트룸





## 도심 속 럭셔리 호캄스

# THE REVERIE SAIGON

## 더레버리 사이공

호치민에서 가장 유명한 응우옌후에 거리와 동코이 거리 사이에 '더레버리 사이공 호텔'이 있다. 호텔은 타임스퀘어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7층에는 로비, 객실은 27층부터다. 나머지 층에는 오피스, 아파트, 가구점, 레스토랑 등이 있다. 호텔 객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7층에 내려서 호텔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한다. 타임스퀘어 건물 1층부터 더레버리 사이공 호텔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이 담겨 있는 보석함. 이것이 바로 호텔에서 받은 첫인상이다. 빛에 따라 다채로운 각도로 반짝이는 상들리에와 벽면과 바닥을 장식한 색색의 광물이 아름답게 일렁인다. 호화로운 1층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면 맞은편 벽 전체를 장식한 아게이트 스톤(Agate Stone)에 시선이 사로잡힌다. 조명이 없어 어두컴컴한 엘리베이터에서 광물은 저 혼자 불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낸다. 7층 로비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리셉션 맞은편에 놓여 있는 보라색 가죽 소파는 베르사유 궁전에 놓여 있는 가구를 가져온 것만 같다. 로비 벽면부터 바닥, 색색의 모자이크로 장식된 기둥까지 무엇 하나 평범한 것이 없다.

더레버리 사이공 호텔은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디자인 갤러리'일까. 이탈리아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라운지와 레스토랑, 로비, 객실을 꾸몄다. 286개의 객실 중 각기 다른 콘셉트와 분위기를 가진 객실의 숫자만 해도 22개. 방문할 때마다 다른 디자인의 룸에서 머물 수 있으니 하나의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은 다양하다. 게다가 각 객실의 디자이너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 호텔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것이 누구의 가구인지,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가구에 자신의 브랜드 마크를 새긴 디자이너 버지네아(Visionaire)의 디자인은 제각각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아서왕의 전설 속 검을 형상화한 수도꼭지라던가 중세시대 갑옷의 체인을 엮어 만든 전등이라던가, 강아지 모형의 팔걸이 소파 등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반대로 조제티는(Giorgetti)의 가구는 심플하고 단순하다. 대신 편안하고 실용성이 높다. 이외에도 화려한 스타일의 콜롬보스틸(Colombostile)과 품질 좋은 가죽으로 섬세한 가구를 만드는 폴트로나 프라우(Poltrona Frau)까지. 디자이너 만큼이나 다양한 콘셉트의 객실이 있다. 덕분에 호텔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2일간 쉬었던 객실은 31층에 있던 파노라마 뷰 룸이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전망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멋진 시티 뷰를 매순간 볼 수 있었다. 낮에는 햇빛이 쏟아지는 풍경을, 밤에는 색색의 조명으로 반짝이는 야경을 원 없이 즐겼다. 게다가 럭셔리한 분위기의 객실은 중세 시대의 귀족이 된 듯 화려했다. 때때로 여느 호텔들은 짐과 같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타이틀을 내걸지만 이곳은 아니다.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와 경험을 누리길 바란다. 아침에는 느긋하게 조식을 먹고, 낮에는 스파를 하거나 수영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밤에는 야경을 바라보며 미니바에 놓인 맥주를 마셨다. 매일 새롭고 낯선 공간에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길 바라는 더레버리 사이공의 메시지는 호캄스를 찾아 떠난 여행자에게 제격인 여행지다.



2



1 파노라마뷰 룸의 전망 2 화려한 침실 3 버지네아 디자인의 강아지소파 4 낮에 마시는 칵테일 한 잔



Editor's pick

How To Enjoy 호캉스

Room Service In the Morning

아침 조식은 6층 레스토랑과 39층 라운지 클럽, 그리고 방에서 먹을 수 있다. 가장 많은 메뉴를 맛 볼 수 있는 것은 레스토랑이겠지만,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고 조용히 아침을 먹고 싶다면 룸서비스를 추천한다. 저녁이 되면 방에 조식 신청 중이 가 놓여 있다. 원하는 메뉴를 체크한 뒤 새벽 2시 전까지 문고리에 걸어두면 아침 시간에 맞춰 식사를 가져다준다. 메뉴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베트남 로컬 푸드 등 다양하다.



The Spa

호캉스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루에 한 번 스파는 필수. 더 레베리 사이공 호텔의 스파숍에는 여자 탈의실에 스팀 사우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스파숍에 방문하면 간략하게 원하는 마사지 프로그램과 강도, 피부 유형 등을 적는다. 운동 또는 수영을 한 다음 와서 사우나를 하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 는 생강 향이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남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준다. 바로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오일의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나중에 씻는 것을 추천한다.



R&J or The Royal Pavilion

베트남에 왔다고 꼭 베트남 로컬 음식만 먹으라는 법은 없다. 타인스퀘어 건물 4층에는 홍콩식 딤섬과 퓨전 중식을 맛 볼 수 있는 '더 로열 파빌리온' 레스토랑, 지하 1층에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가정식을 판매하는 R&J가 있다. 호치민 내에서도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우아한 분위기의 식사를 하고 싶다면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특히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홈메이드 파스타는 R&J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메뉴다.



The Reverie Yacht

호텔에서 최근 론칭한 요트 투어로 총 3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첫 번째는 2시간 30분 동안 요트를 타고 선셋과 삼패인을 즐기는 선셋 요트 투어, 두 번째 프로그램은 5시간 동안 멍그로브 숲이 있는 지역까지 따라 올라가는 사이공 아벤트 투어<sup>SAIGON ADVENTURE</sup>, 세 번째는 태광 정산 컨트리클럽에 정차하여 8시간 동안 골프를 즐기는 8시간짜리 사이공 스포츠 타볼 레저<sup>SAIGON SPETTACOLARE</sup>이다. 이 중에서도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선셋 요트를 추천한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삼패인, 핑거푸드와 함께 럭셔리한 휴식 시간을 누릴 수 있다.



The Reverie Saigon

22 - 36 Nguyen Hue Boulevard 57 - 69F Dong Khoi Street Ho Chi Minh City District 1 Vietnam  
www.thereveriesaiagon.com

